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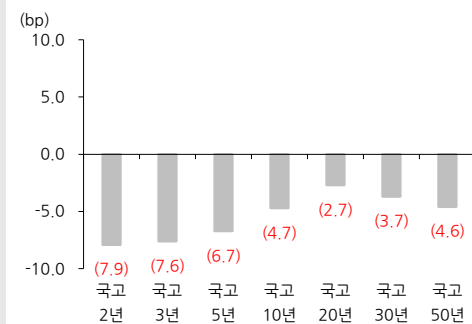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작은 파도는 매도로 대응, 큰 파도를 기다릴 때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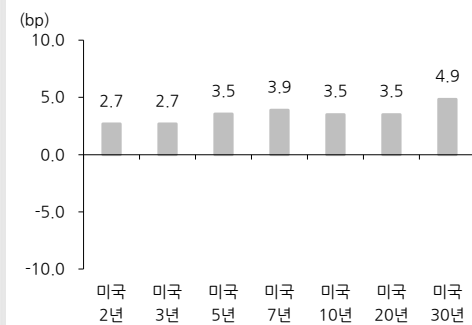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정도가 문제

금리가 연저점을 단순히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가득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 마치 길었던 정체구간을 벗어나자마자 ‘풀악셀’을 밟는 것과 흡사한 모습인데, 대체로 저릴 때는 높은 확률로 잠시 후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됨

경기·물가 흐름은 갑자기 반전된 것이 아니라 이전 흐름이 조금 더 뚜렷(경기)해지고, 소강상태가 해소(물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새로운 이슈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 한국 근원물가는 소비의 추가 위축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소폭 반등할 여지 존재. 즉, 지금의 금리 하락 속도는 펀더멘털 재료의 퀄리티(?)에 비하면 ‘조금’ 과도함

정책 기대감은 ‘그냥’ 과도. 우리 경기가 나쁘지 않고, 둔화되는 미국 경기도 현재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한국은행 물가 전망치에 따르면 근원물가는 2025년, 헤드라인물가는 2025년 이후에나 목표수준에 수렴할 전망. 경제가 버텨주고, 물가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앞서 나간 금융상황은 반작용의 효과를 낼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당사 전망에 비추어보면 미국과 호주,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 영국과 비슷한 곳에 위치하지만 금리나 금융상황은 이미 기준금리를 내린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 2022년 이후 금융상황지수 변동 폭은 유로존보다 낮고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들과 행동하는 척조차 하지 않은 우리나라 금융상황의 전개 양상이 유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흐름. 원래 위치해야 할 곳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긴축 완화를 시점을 당기는 것이 아닌 유지할 명분을 강화시키는 요인

물가도, 경제도, 통화정책도 이제는 금리의 하락을 지지. 그러나 최근의 강제 정도는 지나치다는 판단. 금번 되돌림 장세는 매도 대응이 적절. 금리 재상승 국면을 또 다른 매수 기회로서 활용할 것을 권고. 지금은 작은 파도보다 큰 파도를 기다릴 때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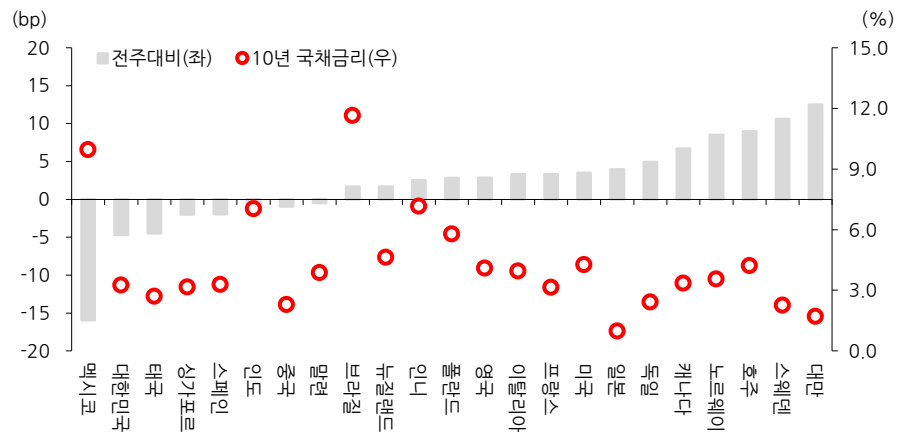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지난 주 글로벌 국채 금리 국가별 혼조세를 보였다. 스위스는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가 하락했지만 동결 기조가 유지된 영국과 노르웨이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 국채의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발표로 금리가 하락한 반면, 브라질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가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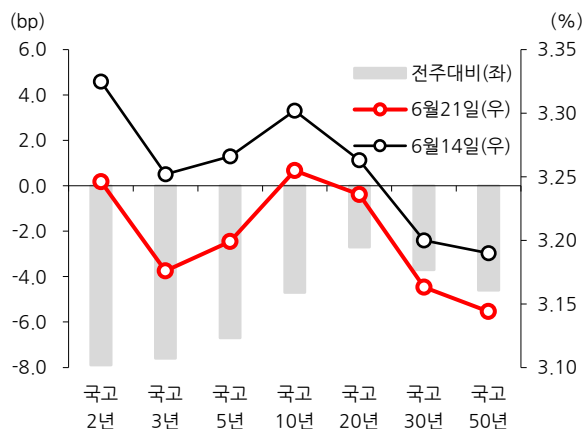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 주요 경제지표, 국내 근원물가 둔화와 이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재부각 등 국내외 우호적인 이슈들이 누적되면서 주중 국고 금리가 연저점을 갱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7.6bp, 4.7bp 하락한 3.18%, 2.36%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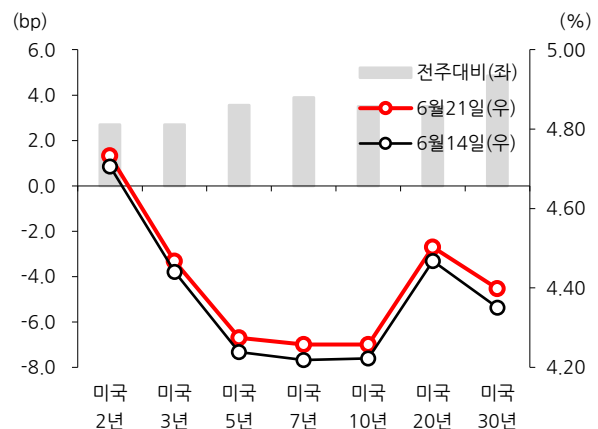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이게 이렇게 내려갈 일인가

시장 강세는
자연스러운 흐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강세장의 등장은 이상하지 않다. 국내외 물가도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미국 경기는 둔화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의 유지나, 인하냐로 갈리지만 최소한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우려했던 부분 작아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금리의 하락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정도로 강할
일인지는 생각해볼 필요

다만, 금리가 연저점을 단순히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가득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마치 길었던 정체구간을 벗어나자마자 ‘폴락셀’을 밟는 것과 흡사한 모습인데, 대체로 저릴 때는 높은 확률로 잠시 후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시장 강세 원인은
국내외 고르게 분포

이번 시장 강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외 경제와 물가 호조, 되살아난 통화정책 기대감이다. 미국은 물가부터 소매판매까지 대부분 주요 지표들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수치들이 확인되었다. 이러다보니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점도표 중간값)이 1회 인하로 조정되었음에도 시장의 2회 인하 전망은 지금도 주된 컨센서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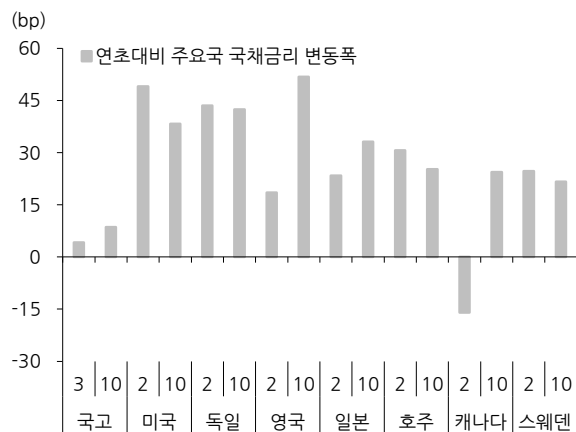
일부 국가들
기준금리 인하도
무시할 수 없음

한국은 5월 근원물가상승률이 2.0%까지 둔화되었다. 하반기 중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던 총재 예상보다도 빨랐다. 잇고 있었던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솟아올랐다. 여기에 더해 유럽지역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수급상황도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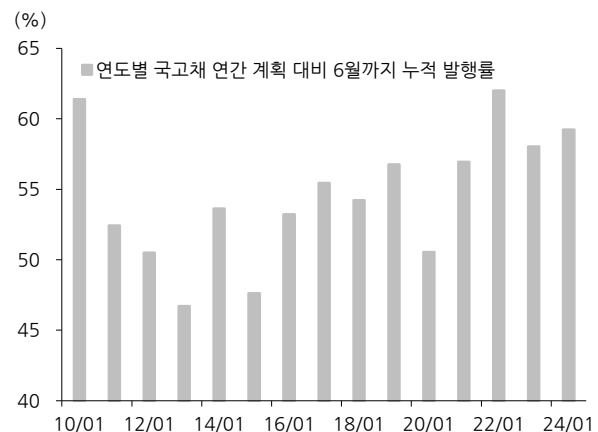
수급상황도 나쁘지 않다. 연초 이후(1~5월은 실적, 6월은 계획) 누적 발행된 국고채는 약 94조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59.2%가 발행되었다. 2010~2023년 평균(54.3%)을 상회함은 물론 동 기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만큼 하반기 공급환경이 타이트해짐을 의미한다.

[그림4] 연초대비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폭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도별 계획 대비 상반기 누적 국채 발행률



주: 2024년 6월은 발행 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반영의
정도가 지나침

그러나 경가·물가 흐름은 갑자기 반전된 것이 아니라 이전 흐름이 조금 더 뚜렷(경기)해
지고, 소강상태가 해소(물가)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새로운 이슈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
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한국 근원물가는 소비의 추가 위축 가능성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소폭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 즉, 현재 금리 하락 속도는 펀더
멘탈 재료의 퀄리티(?)에 비하면 ‘조금’ 과도하다.

정책 관련 기대감은
꽤나 그 정도가 지나침

정책 기대감은 ‘그냥’ 과도하다. 우리 경기가 나쁘지 않고, 둔화되는 미국 경기도 부진하
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 물가 전망치에 따르면 근원물가는 2025년, 헤드라인
물가는 2025년 이후에나 목표수준에 수렴할 전망이다. 경제가 버텨주고, 물가 둔화 속
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

중립금리가 올라갔는데
기준금리를 빨리,
많이 내려줄까?

최근 중립금리에 대한 한국은행 설명도 빨리 내릴 명분을 작아지게 만든다. 한국은행
연구자료에서 추정하는 명목 중립금리는 1.8~3.3%다. 중립금리 상단과 현재 기준금리
차이는 20bp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이창용 총재의 ‘금융안정까지 감안한 중립금리는
소폭 더 높을 가능성’ 발언까지 고려한 새로운 중립금리 레벨에 비추어보면 긴축 수준
은 결코 못 버틸 강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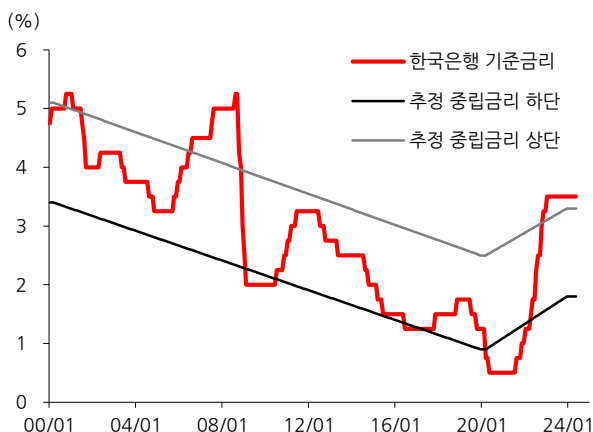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번 강세는 Too Much

주요국과 비교한 한국 금융상황도 지나치게 완화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7개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나라이(일본),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할 나라(미국, 호주), 기준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나라(영국), 기준금리를 인정한 나라(유로존, 캐나다, 스웨덴)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금융상황은 마치 인하가
시작된 것 같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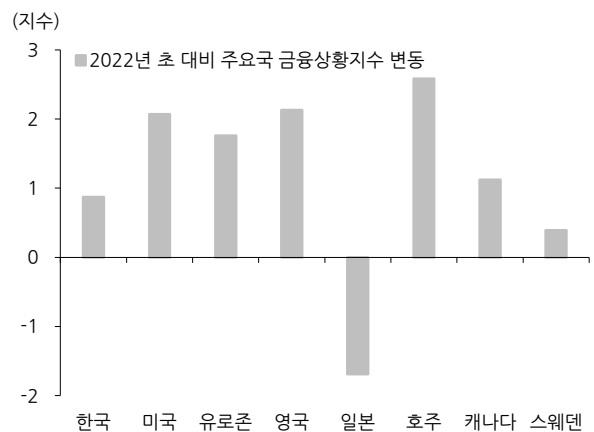
현재 한국은 당사 전망에 비추어보면 미국과 호주,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 영국과 비슷
한 위치에 있는데, 금리나 금융상황은 이미 기준금리를 내린 나라들과 비슷하다. 2022년
이후 금융상황지수 변동 폭은 유로존보다 낮고 캐나다와 비슷하다.

[그림6] 한국은행 추정 중립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주: 흐름은 변곡점별 데이터를 균등 분할해서 차감한 값
자료: 한국은행, 연립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22년 초 대비 주요국 금융상황지수 변동폭



주: Goldman Sachs 금융상황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나치게 앞서 나갔음
되돌림 장세 나타날 것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들과 행동하는 척조차 하지 않은 우리나라 금융상황의 전개 흐름이 유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원래 위치해야 할 곳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긴축 완화를 시점을 당기는 것이 아닌 유지할 명분을 강화시킨다. 물가도, 경제도, 통화정책도 이제는 금리의 하락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의 강세 정도는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되돌림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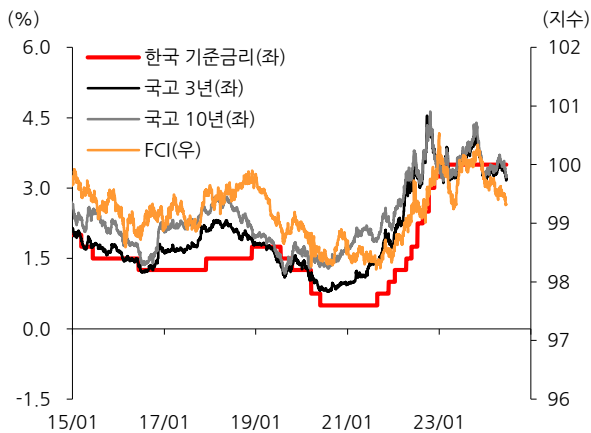
이번 되돌림 장세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

이미 지난 주 중반부터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다. 당사는 향후 이번 숨 고르기 국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했을 때 매수를 권고한다. 작은 파도보다 큰 파도를 기다릴 때다.

국고 3년: 3.13~3.23%
국고 10년: 3.2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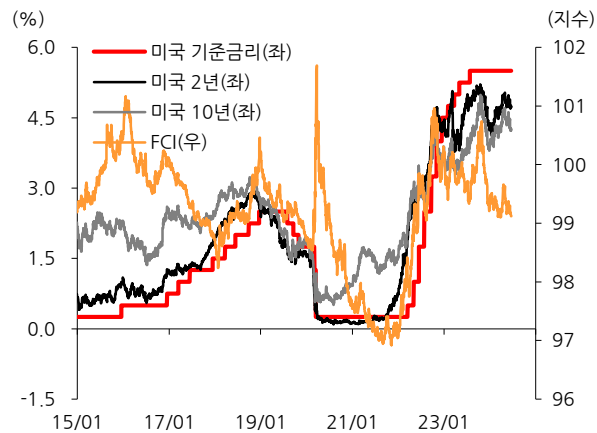
이번 주 국고채 금리는 3년, 10년 각각 3.13~3.20%, 3.23~3.30%을 제시한다. 현재 레벨은 과도하게 하락한 수준이지만 주 후반 미국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금리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그림8] 한국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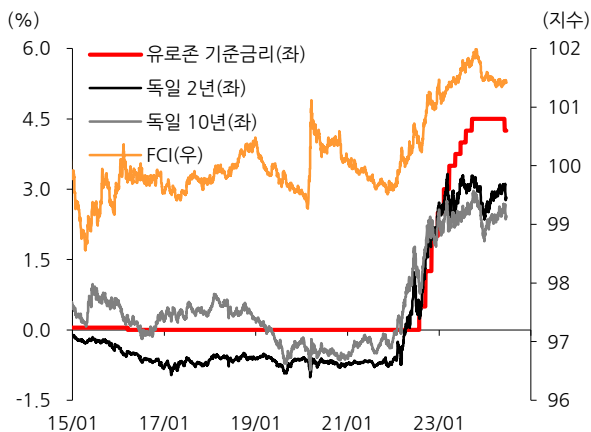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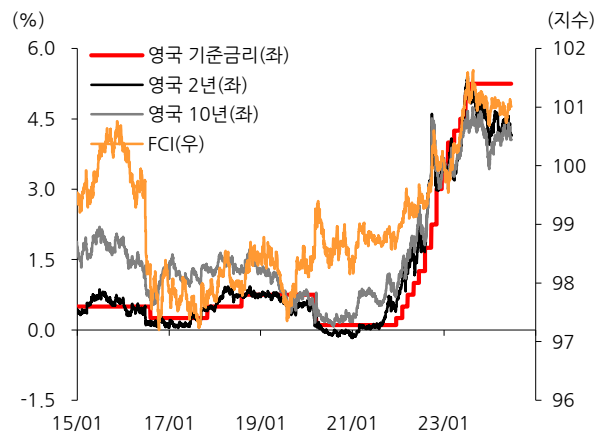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유로존 및 독일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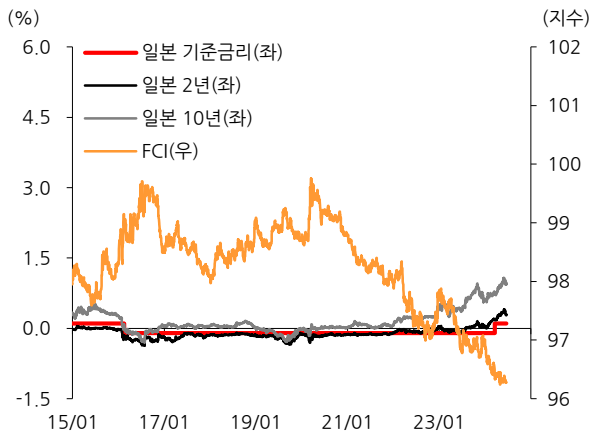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영국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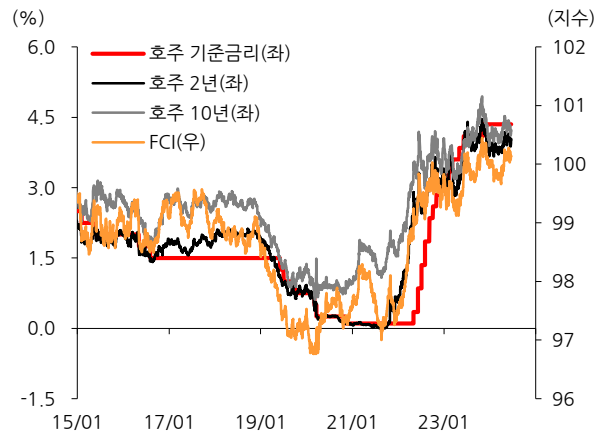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일본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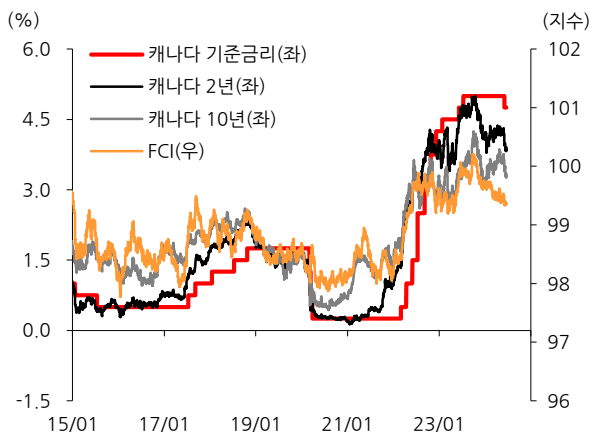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호주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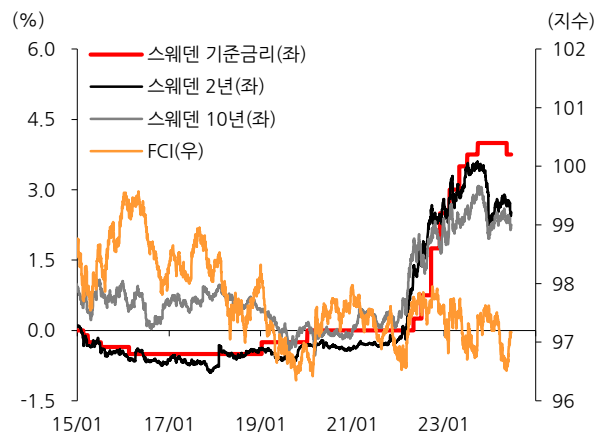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캐나다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스웨덴 주요금리 및 금융상황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17	Neel Kashkari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	매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적(reasonable prediction) - 연준은 강력한 정책 포지션을 구축한 상황
6/18	Philip Lane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몇 국가에서 뚜렷한 임금 상승세가 확인. 그럼에도 역내 기업들은 임금 상승세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 경제는 부진한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 - 본인은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음 - 공급 측면 압력은 내년 중 사라질 것(muted) - 월간 물가 데이터이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음. 일시적 요인과 추세를 구분할 필요(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noise and signals) - 물가 경로는 계속해서 울퉁불퉁할 것. 물가 반등은 용인할 수 없지만 울퉁불퉁한 흐름까지는 감내 가능 - 회의 때 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정책 결정할 것 - 시장의 패닉도, 통화정책 운영에 해가 되는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음. 현재 장세는 조정 국면. 환경을 해치는 수준은 아님 - 금리 하락 속도는 상승할 때보다 느릴 전망 - 경제가 성장할 경우 침체를 피하기 위한 인하는 불필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핵심은 수치가 낮아져도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연준과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은 큰 이슈가 아님. 유로화 환율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경우나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직 물가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정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 중앙은행은 필요 시 시장을 놀라게 하는 행보를 보여줄 필요
6/18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는 시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 작동 여부를 주의깊게 주시 중
6/18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를 조금 더 유지(for a bit longer)하는 것이 물가 상방 압력 제거에 도움 - 경제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연내 1회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 물론 2회 인하나 동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quite possible) - 본인은 지금도 둔화되었으나 추세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 점진적인 실업률 상승, 긴 시간이 걸릴 물가 목표 달성 전망에 변함이 없음 - 최근 물가 지표가 긍정적인 것은 사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거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 - 원하는 데이터를 볼 때까지 기준금리 유지 가능 - 고용시장 위축 국면과 현재는 상당한 거리 존재(not even close)
6/18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를 이용해 완화정도 조절해 나갈 것. 현재까지 경제는 전망 경로에 위치 -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임금 상승 효과 모니터링 중 - 국채 매입 규모 축소로 시장 자체 영향력 강화 기대. 현재로서는 정확한 테이퍼링 규모를 알 수 없음. 그러나 예상 가능한 범위와 속도로 조절해 나갈 것 - JGB 테이퍼링을 통화정책 메시지로 해석하면 안됨(will not send strong policy message by cutting JGB purchases).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다른 영역(distinct matters) - 국채 매입 축소 전 관련 내용 사전 공지 계획 중 - 최종적인 일본은행 대차대조표 규모는 알기 어려움
6/1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예상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있지만, 물가의 목표수준 수렴 여부 확인까지는 시간 걸릴 것 -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높은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해 구조개선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18	Michele Bullock (RBA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정책은 상당히 복잡한 국면(really complex part of the cycle)에 위치 - 위원들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논의 - 금리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할 수 없는 상황(it's not obvious now what to do with rates)
6/19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기준금리는 데이터에 달려있지만 향후 몇 년간 정상 수준으로 인하될 것 - 물가는 2%를 향해 복귀 중.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강력. 다만, 고용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둔화 중
6/19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물가 지표는 매우 긍정적(very encouraging). 앞으로 꾸준하고 광범위한 물가 품목들의 진전 기대 - 고용은 일부 우려 요인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건전한 수준 - 연내 1회 인하 시나리오는 합리적. 그러나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금 관련 데이터가 가계 소비에 지표보다 훨씬 더 나은 판단 지표
6/19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야 함. 한, 두달 긍정적인 물가 지표에 과잉반응하면 안됨 - 물가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 - 물가 안정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데이터가 기준금리 경로를 보여줄 것. 연내 1회, 2회 인하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 - 지금까지 물가 데이터들은 확신을 갖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제 데이터들은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음을 시사
6/19	Adriana Kug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심스럽지만 물가 목표 달성에 여부에 긍정적인 입장. 경제도 올바른 경로에 위치 -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매우 제약적인 수준. 다만, 수입물가 상승 리스크는 우려 요인 - 연내(later this year)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한 선택 - 소매판매 지표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민자 수 증가는 생산 능력 향상과 물가 안정에 도움. 추가 임금 상승세 둔화 필요 -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됨
6/19	Alberto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관련 진전이 다시 더해진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지지할 것 -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는 인내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수준. 그러나 긴축의 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존재 - 장기 실질 기준금리는 0.5%보다 높을 것 - 5월 PCE 물가도 긍정적인 결과 예상. 금번 소매판매 지표는 2분기 수요 둔화를 시사. 고용시장은 타이트하지만 더 이상 과열 국면은 아님 -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개 분기(quarters) 필요 - 장기 중립금리(longer*)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전망에 필요. 당장의 정책 운영에 큰 도움은 안됨 -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자 수 증가는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 -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 - 물가 목표 조정은 기대인플레이션은 혼란스럽게(muddy) 만들 것
6/19	Lorie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매우 높지만 연준이 엄청난 진전(tremendous progress)을 이룬 것도 사실 - 최근 물가 수치는 긍정적. 그러나 그저 한 달 수치임에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됨. 여전히 상방 압력을 우려 중이며 확신을 갖기 위해 몇 달이 더 필요 - 중립금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상승했을 가능성 - 통화정책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준에 위치 - 경제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
6/19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물가 지표는 매우 긍정적(excellent)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6/20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 것은 좋은 소식 - 앞으로(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는 물가가 현재 수준에 머무는 것을 확인할 필요
6/21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매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국면을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the economy keeps throwing us curve balls). 기준금리 경로는 경제에 달려있음 -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 1, 2년 소요 예상 - 임금상승률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보다 소폭 높은 상황 - 엄청난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은 현재진행형 - 경기 둔화 관련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 그럼에도 경기 펀더멘탈은 매우 강력하며 본인 전망도 낙관적
6/21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미국 경제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마무리 - 그럼에도 지난 한 달동안 데이터들은 진전을 멈추고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기준금리 인하 전 물가 관련 확실한 시그널 확인 필요. 첫 인하 이후 행보도 데이터가 결정할 것 - 현재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에 위치 - 역사적으로 강한 현재 고용시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 중 - 기준금리 인상의 완전한 효과는 아직. 그러나 제때(in time) 발현될 것
6/21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연간)이 꼭 2%로 복귀할 필요는 없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4	25	26	27	28
<p>(한국)</p> <p>국고 5년 입찰(2조 3,000억원)</p> <p>(미국)</p> <p>6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19.4, 전년:-24.4)</p> <p>(일본)</p> <p>일본은행 국제매입</p>	<p>Dai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p> <p>국고 20년 입찰(7,000억원)</p> <p>6월 CSI (전월:98.4, 전년:100.8)</p> <p>(미국)</p> <p>5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전월:-0.23, 전년:-0.17)</p> <p>4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바:0.1%, 전년바:6.7%)</p> <p>4월 Case 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전월바:0.33%, 전년바:7.38%)</p> <p>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102.0, 전년:110.1)</p> <p>6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0.0, 전년:-8.0)</p>	<p>Cook 연준 이사(중립, O) 연설</p> <p>Bowman 연준 이사(매파, O) 연설</p> <p>(미국)</p> <p>2년 국채 입찰 (4.92%, 간접:57.9%, 응찰률:2.41배)</p> <p>5월 신규주택 판매 (예상(m):2.5%, 전월바:-4.7%, 전년바:-7.7%)</p>	<p>(한국)</p> <p>7월 BSI 제조업황전망 (전월:76.0, 전년:72.0)</p> <p>(미국)</p> <p>5년 국채 입찰 (4.55%, 간접:65.0%, 응찰률:2.30배)</p> <p>1분기 GDP(잠정) (예상:1.5%, 전분기비연율:1.3%)</p> <p>5월 미결주택 판매 (전월바:-7.7%, 전년바:-0.8%)</p> <p>(유로존)</p> <p>5월 M3 통화공급 (전월바:-0.9%, 전년바:1.3%)</p> <p>6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14.3, 전년:-16.1)</p> <p>6월 경기 신뢰지수 (전월:96.0, 전년:95.7)</p>	<p>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p> <p>5월 소매판매 (전월바:-3.2%, 전년바:-2.6%)</p> <p>5월 광공업생산 (전월바:2.2%, 전년바:6.1%)</p> <p>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100.5, 전년:98.8)</p> <p>(미국)</p> <p>7년 국채 입찰 (4.65%, 간접:66.9%, 응찰률:2.43배)</p> <p>6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2.0, 전년:-11.0)</p> <p>5월 PCE, Core PCE (PCE 예상 전월바:0.0%, 전년바:2.6%) (Core 예상 전월바:0.1%, 전년바:2.6%) (PCE 전월바:0.3%, 전년바:2.7%) (Core 전월바:0.2%, 전년바:2.8%)</p> <p>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69.1, 전년:64.2)</p> <p>(일본)</p> <p>일본은행 국제매입</p> <p>(중국)</p> <p>6월 제조업 PMI(6/30) (전월:49.5, 전년:49.0)</p>
7/1	2	3	4	5
<p>ECB Sintra 포럼(-7/3)</p> <p>(한국)</p> <p>6월 수출입 (수출 전월바:3.3%, 전년바:11.5%) (수입 전월바:-2.8%, 전년바:-2.0%)</p> <p>(미국)</p> <p>6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48.7, 전년:46.6)</p>	<p>호주 RBA 6월 Reserve Bank Board Meeting 의사록</p> <p>Lagarde ECB 총재 연설</p> <p>Powell 연준 의장 연설</p> <p>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p> <p>(한국)</p> <p>6월 CPI, Core CPI (CPI 전월바:0.1%, 전년바:2.2%) (Core 전월바:0.2%, 전년바:2.0%)</p> <p>(유로존)</p> <p>5월 실업률 (전월:6.4%, 전년:6.5%)</p>	<p>(미국)</p> <p>5월 공장 수주 (전월바:0.7%, 전년바:1.3%)</p> <p>5월 내구재 주문 (전월바:0.6%, 전년바:1.2%)</p> <p>(유로존)</p> <p>5월 PPI (전월바:-1.0%, 전년바:-5.7%)</p>	<p>미국 휴장(독립기념일)</p> <p>미국 연준 6월 FOMC 의사록</p> <p>(한국)</p> <p>5월 경상수지 (전월:-2.85억\$, 전년:+23.0억\$)</p>	<p>(미국)</p> <p>6월 실업률 (전월:4.0%, 전년:3.6%)</p> <p>(유로존)</p> <p>5월 소매판매 (전월바:-0.5%, 전년바:0.0%)</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